

유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PIS)의 개발

Study on Parental Intelligence Scale Development in Parent at Childhood

현미숙(Mi Sook Hyon)¹⁾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evelop the 'Parental Intelligence Scale', which can be applied in the par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and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for more appropriate interventions by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roles and strong/weak points of the parent's roles under the special situation and environments.

In developing the scales, this study reviews of numbers of existing literatures, analysis of scales and tools on parent's role or attitude, collection of episodes on parent's role, validity check processes by field experts, and 2 rounds of factor analysis.

The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regard of the development of Parental Intelligence Scale, 3 factors of care-giving role, management role, nurturing role were derived from the conceptual and measurement model. From these 3 factors, 8 sub-factors of empathy, encourage, enhancement, rational authoritativeness, flexibility, rejection, acceptance, control were constructed. 39 question items were derived in order to measure these sub-factors. Especially through the two rounds of factor analysis, the question items with enhanced internal consistency were derived and total cumulative variance was increased, which made theoretical model into the generalized model possible.

Key Words : 부모역할지능(Parental Intelligence), 부모역할지능척도(Parental Intelligence Scale), 부모 교육(Parent Education), 부모상담(Parent Counselling).

I. 서 론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역할을 한다. 부모역할은 표면상 아이를 임태한 순간부터 시작

되고 부모-자녀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역할의 기저에는 상당히 뿌리 깊고 광범위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하고 있다. 즉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Mi-Sook Hyo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E-mail : mshyon@empal.com

있던 선행적 경험들부터 지금 현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까지, 다양한 차원과 요소들이 부모역할이라는 하나의 복합적 결정체로 표출되는 것이다.

부모가 매순간 보이는 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여한다는 가정들은, 부모 역할을 측정해내기 위한 척도개발로 구체화되 기 시작하였다. 개발된 척도들은 부모가 허용적 인가 혹은 권위주의적인가 혹은 거부적인가 등, 부모를 이차원 이상의 차원이나 양육특성으로 분류(오기선, 1982; 이원영, 1983; 송설희, 1994; Baldwin, 1945; Becker, 1964; Schaefer, 1959; Symonds, 1949)해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임상적 이거나 직관적인 혹은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분류를 시도한 이러한 연구 및 척도들의 가정은, 부모양육 특성이 패턴화된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양극단의 성향을 동시에 취할 수 없으며 대체로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타당한 양육차원을 분류해내었고, 이 분류도구들을 근거 있는 척도로 인정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별 연구자들은 이와 다른 요인들을 도출(예 : Sears, Maccoby, & Levin, 1959)해 내었는데, 이것은 측정대상이 되는 부모마다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들이 공통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묶어낼 수 없는 특수한 특성들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부모역할 측정도구들은 부모의 지배적인 양육 특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줄 뿐, 양육태도의 한 계점을 개선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개입에 대한 시사점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구체적으로 부모역할 결정요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연

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가족의 경제자원, 가족구조, 크기, 부모의 정신/신체 건강, 부부관계, 부모자신의 특성, 그리고 자녀특성 등의 차원들이 부모역할에 영향을 준다(Chase-Lansdale & Pittman, 2002)고 보았다.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과 요소들은,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상반되는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상반되는 두 가지 해석이란, 부모가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와, 패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 행동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즉 부모역할이라는 행동은 다차원적인 요소들의 결정체여서 일정정도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만, 동시에 상황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는 때로 일관적이지 않는 불일치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대부분 자신에게 익숙한 패턴대로 행동하게 되지만, 갈등상황에 접했을 때는 수많은 요소들의 논리와 욕구들의 상충 속에 그 순간에 적합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차원에서의 영향을 생각해보면, 자녀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부모는 고정화된 부모의 역할패턴에 따라 행동하기 어려운 다양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권위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고, 허용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보호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성장·변화함에 따라 부모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고, 왜 그런 특정한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혹은 새

로운 자원을 끌어들여 적응적인 부모역할 반응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문제해결을 하고 적응하고 학습하기 위해 지능이 필요한 것처럼, 부모역 할에서도 맥락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맥락에 따라 적절한 역할들을 선택하고 그에 적합한 역할특성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능이 필요하다. 또한 역할내 혹은 역할간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정(正)과 반(反)에 대한 좀 더 나은 합(合)을 얻어내기 위한 변증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기도 하다. 즉 부모는 상황과 맥락에 적절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적능력 및 지적행동, 다시 말하면 부모역할지능(parental intelligence)이 필요(Kail & Pellegrino, 1985)한 것이다.

최근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능’에 대한 관점은, IQ라는 종합지수로 개인들을 선별하고 배치하고 고정화된 낙인을 찍는 것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개입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의 능력만을 측정하는 구인에서, 상황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다면적인 구인으로 개발되고 있다.

부모역할에서의 지능도 유사한 맥락에서 평가하고 적용될 수 있다. 즉 부모역할은 상황에 따라 표출되는 것이므로,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문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역할 평가에서 하나의 총합된 점수로 평가되기 전에, 부모개인이 갖고 있는 양육특성의 강약을 평가해볼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발생되는 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즉 맥락, 상황, 그리고 자녀의 발달 능력과 의도성 등을 적절하게 평가할수록 긍정적이고 적절한 부모역할 행동과 태도를 보일 수가 있고(Dix, Ruble, Grusec, & Nixon, 1986), 부모가 적절한

부모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는 또래 관계에서 적응력·수용력이 높고 또래관계가 좋으며(박영달, 1995), 자아존중감·가치감이 높으며, 유능감과 적응발달이 높다(허묘연, 2000).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부모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는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이혜영, 1986),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높다(임선화, 1987).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고, 분노와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도록 영향을 끼침으로서 아동문제행동과 병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박정희, 2002; 이숙, 1988; 임희수, 2001; 황혜정, 1997; Cicchetti & Toth, 1995; Daggett, O'Brien, Zanolli & Peyton, 2000; Ramey & Ramey,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부모역할 평가도구는 총점적인 평가, 즉 부모를 한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태도나 가치적인 질문법을 사용하므로서 자기보고식의 평가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더 크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 척도를 대부분 그대로 혹은 일부 수정·변안하여 사용함으로서 문화적인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역할지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첫째, 개인의 부모역할을 단순히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육특성 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구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문화와 문맥에 맞는 척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항들은 우리나라 부모양육 상황에 맞는 문맥에서 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일반적인 태도나 가치만을 물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것에 답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갈등과 대처들을 물어봄으로서 실제 문맥에서의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모 역할태도나 성향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도구가 개발된다면, 개인내의 부모역할 평가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부모역할 평가를 통해 좀 더 직접적이고 선택적인 부모역할 개입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보여진다.

한편 ‘부모역할지능’은 ① 일반적인 부모역할(양육, 관리, 발달자극 역할 등) 상황에서 맥락에 맞는 합리적인 역할선택능력과, ② 부모역할들의 갈등상황, 즉 정(正)과 반(反)이 상충되는 부모역할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고 적합한 합(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모역할지능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부모역할 및 특성 구인을 설정하여하는데 부모역할지능 구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는 상태여서, 이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자들이 정의한 부모역할 및 태도의 구인을 우선 정리하고, 이 구인들을 토대로 부모역할지능을 평가할 수 있는 맥락적 사례를 직접 표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Holden과 Ritchie(1988)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된 부모역할을 3가지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3가지 부모역할을 상위구인으로 설정하고, 이 연구자들이 제시한 3가지 구인별 부모특성(1988, p. 32-36, 표 1참조)과 국내외 부모교육 연구 및 척도들을 분석하여 각 구인별 ‘부모역할특성’이라는 하위구인들을 설정하였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양육역 할(caregiving role)

양육 역할(caregiving role)은 부모가 자녀의

물리적 · 정서적 단기욕구에 대해 어떻게 적절한 사회적 · 물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역할이다(Holden & Ritchie, 1988). 기존의 국 · 내외 부모양육척도와 각 연구물들을 통해 얻은 양육역 할(caregiving role)내에 포함되는 부모양육특성은 수용, 거부, 공감, 스트레스 등이다. 이 네 가지 특성들안에 세부적인 하위 수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수용에는(송설희, 1994; 양옥경 · 김미옥 · 최명민, 2002; Maccoby, 1980; Rohner, 1986) 보호와 위로, 온정, 지지 및 승인, 거부에는(송설희, 1994; 허묘연, 2000; Maccoby, 1980; Rohner, 1986) 적대감 및 공격성, 무관심 및 무시, 미분화된 거부, 공감에는(연진영, 1987; 이정미, 2002; Ainsworth, Bell & Stayton, 1971; Belsky, Rovine & Taylor, 1984; Holden & Ritchie, 1988; Maccoby, 1980; Stover, Guerney & O'Connell, 1971) 민감성, 감정인식에 일치하는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에는(김기현 · 강희경, 1997; 이은지, 2002; 이한우, 2002; 신숙재, 1997; Abidin, 1990) 부모관련 스트레스, 자녀관련 스트레스 등이 포함된다.

○ 관리역 할(management role)

관리역 할(management role)은 부모가 일관적 이면서도 융통성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하루 일과를 조직화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아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역할이다(Holden & Ritchie, 1988). 관리역 할에는 일반적 관리결정(General management decision)과 집행적인 관리결정(Executive management decision)이 포함된다. 일반적 관리결정이란 어떻게 자녀가 하루를 보내는가와 같은 보통의 조직적 과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집행적인 관리결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유아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를 포함하는 것이다.

〈표 1〉 3가지 부모역할에 있어서 부모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	부모의 특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민감성과 반응성(Ainsworth, Bell, & Stayton, 1971; Belsky, Rovine, & Taylor, 1984; Crockenberg, 1981; Clarke-Stewart, 1973) 접근성(Ainsworth et al., 1971) 온정과 다정함(Clarke-Stewart, 1973) 정서적인 관여(Clarke-Stewart & Hevey, 1981)	안정애착
	반응적인-남아(Martin, 1981) 민감한(Schaffer & Crook, 1980; Stayton, Hogan, & Ainsworth et al, 1971) 일관적인-남아(Lytton, 1977, 1980)	순응/협력
양육 역할	일관적인(Lewis & Brooks-Gunn, 1979; Watson, 1972) 일관적인-남아(Coopersmith, 1967) 온정-남아(Coopersmith, 1967) 정서적인 관여(Coopersmith, 1967)	환경에 대한 통제감 자존감
	일관적인(Aronfreed, 1976; Parke, 1974, 1977) 온정(Hoffman & Saltzstein, 1967) 정서적인 관여 (Johnson, 1962)	도덕 및 친사회성 발달
	반응적인(Baumrind, 1967; Elardo, Bradley, & Caldwell, 1977; Honzik, 1967; Radin, 1971; Seegmiller & King, 1975; Wulbert, Ingles, Kreigsmann, & Mills, 1975; Yarrow, Rubenstein, & Pederson, 1975) 온정(Kelly & Worrell, 1977) 정서적인 관여(Bayley & Schaefer, 1964; Bradely & Caldwell, 1976; Honzik, 1967)	인지적 · 언어적 발달
	반응적(Baumrind, 1967, 1978; Baumrind & Black, 1967) 반응적(Baumrind, 1967; Baumrind & Black, 1967)	여러가지 사회적 반응성 사회적인 주장성
	다양한 전략의 사용(Chapman, 1979) 일관성-남아(Lytton, 1977, 1980) 추론의 사용(Baumrind & Black, 1967; Lytton, 1979; Minton, Kagan, & Levine, 1971) 심리학적 보상의 사용(Lytton, 1977)	순응/협력
	민감성(Schaffer & Crook, 1980) 다정함(Feshbach, 1978)	
관리 역할	아동에게 선택권주기-남아(Lytton, 1980) 일관성-남아(Kuczynski, 1983; Parke, 1974, 1977) 추론의 사용(Kuczynski, 1983; Minton, et al., 1971; Parke, 1974) 온정과 관여(Gordon, Nowicki, & Wichern, 1981)	자기통제/내면화
	선택권을 주는 용통성(Eisenberg-Berg & Mussen, 1978; Mussen, Harris, Rutherford, & Keasey, 1970) 다정함(Mussen, et al., 1970) 확고함(Hoffman, 1970)	친사회성 발달
	높은 기준의 설정(Hoffman, 1970; Mussen et al., 1970) 추론사용(Hoffman & Saltzstein, 1967; Zahn-Waxler, Radke-Yarrow, King, 1979)	

부모역할	부모의 특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관리 역할	공감적인(Zahn-Waxler et al., 1979), 아동에게 선택권주기(Coopersmith, 1967) 다정함-남아(Coopersmith, 1967) 확고함(Coopersmith, 1967) 높은 기준의 설정-남아(Coopersmith, 1967) 추론 사용-남아(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
관리 역할	아동에게 선택권주기(Elardo et al., 1977; Bradley & Caldwell, 1976) 추론 사용(Hess & Shipman, 1967) 심리학적 보상의 사용(Feshback, 1973) 높은 기준의 설정(Radin, 1973; Seegmiller & King, 1975)	인지 · 언어발달
관리 역할	일관성(Aronfreed, 1976; Parke, 1974, 1977) 추론 사용(Aronfreed, 1976; Hoffman, 1970; Hoffman & Saltzstein, 1967; Parke, 1974, 1977)	도덕발달
관여 역할	관여(Lytton, 1977, 1980; Marin, 1981) 아동을 존중(Stayton et al., 1971) 민감적, 수용적(Stayton et al., 1971)	순응/협력
발달 자극 역할	성숙행동을 격려-남아(Lytton, 1980) 관여(Gordon et al., 1981) 아동의 느낌에 대한 토론을 격려하기(Block, 1971) 아동의 자유를 허용-남아(Lytton, 1980)	자아-통제/내면화
발달 자극 역할	적절한 기대감(Mussen et al., 1970) 아동의 자유를 허용(Eisenberg-Berg & Mussen, 1978; Mussen et al., 1970)	이타심/감정이입
발달 자극 역할	성숙한 행동의 격려; 자유허용-남아(Coopersmith, 1967) 관여(Coopersmith, 1967; Loeb, Horst, & Horton, 1980) 아동 존중-남아(Coopersmith, 1967)	자존감
발달 자극 역할	지지적인(Kelly & Worrell, 1977) 높은 기준의 설정(Baumrind & Black, 1967; Greenberg & Davidson, 1972; Holloway & Hess, 1982; Radin, 1973) 관여(Bradley, & Caldwell, 1976; Elardo et al., 1977; Honzik, 1967; Seegmiller & King, 1975; Wulbert et al., 1975) 아동의 맥락에 흥미를 보여주기(Greenberg & Davidson, 1972; Radin, 1973) 아동 자유를 허용(Kelly & Worrell, 1977) 적절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기(Hoff-Ginsberg & Shatz, 1982)	인지 · 언어발달
발달 자극 역할	아동의 느낌에 대한 토론을 격려하기(Block, 1971; Hoffman, 1984) 관여(Johnson, 1962) 적절한 행동의 모델 보여주기(Brody & Shaffer, 1982)	도덕발달
발달 자극 역할	높은 기준의 설정-남아(Baumrind, 1971; Baumrind, 1978) 높은 기준의 설정-여아(Baumrind, 1967; Baumrind & Black, 1967)	여러가지 사회적 반응성 사회적 주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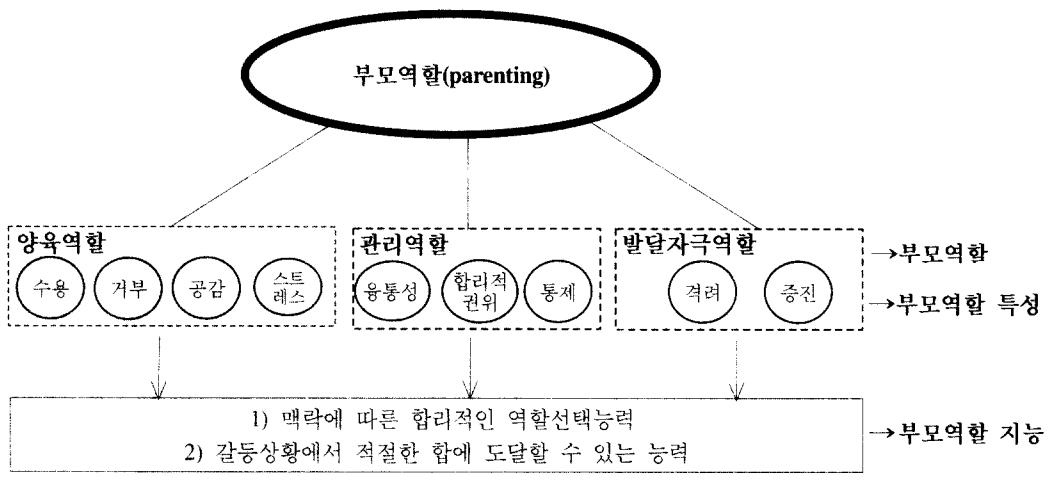
기존의 국·내외 부모양육척도와 각 연구들을 통해 얻은 관리역할(management role)내에 포함되는 부모양육특성은 융통성, 합리적 권위, 통제 등이다. 이 세 가지 특성들안에 세부적인 하위 수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융통성에는(양육경·김미옥·최명민, 2002; Fowler, 2003) 안정성, 변화능력, 그리고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이 포함된다. 합리적 권위에는(이혜승, 2003; 허묘연, 2000; Baumrind & Black, 1967; Gilbert & Hanson, 1982; Maccoby, 1980) 독립성 인정, 부모의 정서표현, 합리적 안내, 그리고 책임감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통제에는(박경자, 권연희, 2003; 이미정, 1998) 지시·통제의 적절성·일관성과 지시·통제의 적절성이 포함된다.

○ 발달자극 역할

부모역할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을 자극하는 부모의 역할은 개인적 혹은 고정된 특성 모델(individual or fixed traits model)보다는 생물사회적 발달 맥락주의(biosocial developmental contextualism)에 근거한다(Ramey & Ramey, 2000). 고정된 특성모델과는 달리, 생물사회적 발달 맥락

주의의 핵심 가정은 유아발달은 생물학적·환경적 힘에 의해서 밀접하게 결정되며, 그것은 유아가 가지는 경험의 누적된 세트(set)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른 중요한 가정은 행동에서 생물학적인 요소를 불리해내는 노력은 무익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전체 유아의 부분으로서 뒤엉킨 상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들이 이러한 요소를 측정해내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임의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환경 속에서 유아의 경험력(history of experiences)을 증가시키는 일이 부모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이론에서는 연속되는 발달 진행을 위해 유아를 준비시킬 수 있는 중심역할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심리사회적 발달기폭제 메커니즘(psychosocial development priming mechanism)’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유아의 행동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7가지 메커니즘이 부모를 포함한 주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다. 발달기폭제의 7가지 메커니즘은, 탐색을 격려하기, 기본기술에서의 스승 되기(mentor in basic skills), 유아의 발달진보를 축하하기,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고 확장하기, 보호와 위로하기, 의사



〈그림 1〉 부모역할지능 척도의 연구모형

소통하기 그리고 안내와 제한하기이다. 발달자극 기폭제 7가지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자극하는 역할로 모두 사용해도 무방한 차원들이다. 다만 다섯 번째 기제인 ‘보호와 위로’, 그리고 일곱 번째 요소인 ‘안내하기’는 각각 ‘양육역할’과 ‘관리역할’에 포함되는 차원이므로, 발달역할에서는 유아의 발달기폭제 메커니즘 중 5가지의 차원을 적용하였다.

이 5가지 차원은 다시 격려와 증진이라는 상위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격려에는 탐색격려와 발달진보 축하의 차원을, 증진에는 기본 기술에서의 스승되기, 터득한 기술 연습과 확장,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의사소통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맥락에 따라 부모가 적절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부모역할지능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아기 즉 만 3세~만 5세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모의 부모역할 및 특성을 스크린 해주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역할지능 척도를 위한 개념적 구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역할지능 척도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예비조사

1) 이론적 구인 및 문항의 개발

우선 국내 부모역할과 관련된 척도, 외국의 부모역할 관련척도, 놀이치료 효과 논문 중 부모변

인에 관한 부분의 탐색,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국내외 논문 탐색, 그리고 이론적 개념 등을 토대로 3가지 부모역할과 9개의 부모특성을 추출해내고, 이와 관련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시안으로 추출한 구인이 적절하게 추출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 교육 및 상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 25명에게 구인의 적절성과 관련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결과 부모와의 만남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부모역할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해주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대부분 연구자가 상정한 3가지 구인에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나온 세부적인 사항들과 연구자가 추출한 시안들을 종합해서 ‘부모역할지능 척도’의 구인과 조작적 정의가 작성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맥락에 따른 부모역할을 얼마나 적응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모역할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천 혹은 수만 가지의 맥락 속에서 대표성 있는 맥락의 추출이 필요하였다. 즉, 각 구인과 수준별에 적합한 대표성 있는 ‘상황의 표본’이 필요하였다. 양질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부모역할지능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별 사례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질문지를 부모교육 강좌를 이수한 석사이상의 부모 혹은 유아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예: 놀이치료사, 상담가)에게 배포하여, 양질의 사례를 얻고자 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역할지능 척도’를 위한 하위 요인별로 반구조화되어 있으며, 해당 부모역할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쓰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70부를 배포하여 58부가 수거되었으며, 구인에 적합한 사례만 추출한 결과 664개의 사례표본을 얻었다. 이 사례 중 빈도가 2

이상(즉, 2명 이상이 말한 동일한 사례)인 문항과, 빈도는 1이지만 설문내용에 적합한 사례, 그리고 사례에는 없지만 설문 목적 상 필요한 상황들을 첨가하여 ‘부모역할지능 척도 시안’을 완성하였다. 이때, 빈도수가 너무 많고 너무 일반적인 사례는 제외하였으며, 맥락에서 갈등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내용들을 포함하기 위해 Holden

과 Ritchie(1988, p.44-46)의 변증법적인 부모역할의 예를 참조하였다(표 2 참조).

최종 개발되는 척도의 문항은 40여 문항정도로 예상하였으므로, 부모역할지능척도 시안은 총 92문항으로 계획하였다. 92문항을 토대로 전문가들에게(표 3 참조) 내용타당도 검증 설문지가 실시되었다.

〈표 2〉 세 가지 부모역할에서의 변증법적 부모역할의 예

역 할	갈등적 요소들	정(thesis)	반(antithesis)	합 (synthesis)
양 육 역 할	부모 안에서(within-parent) 상당량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역할영역이다. 반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벼룩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완전히 안전한 세팅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갈등도 있다. 탐험하도록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지 또한 아동에게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은 가족의 욕구를 희생하더라도 아동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아동중심적인 것인지, 그리고 온정은 얼마나 충분히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들이 부모들로 하여금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험을 허용한다. ·아동 욕구에 맞춘다 ·아동에 대해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다 ·온정을 보여준다. ·민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부모 혹은 가족의 욕구를 유지 한다. ·구조를 제공 한다. ·때로는 유인물을 제공하여 설득한다. ·아이를 벼룩없게 만든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
관 리 역 할	좀더 부모 내부적인 갈등을 야기시킨다. 부모는 규칙을 강화하기 위해 확고해야 할 필 요리를 느끼기도 하지만, 부모는 상황적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서 융통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다. 확고하면서 따뜻한 것은 어려운 행동의 결합을 요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종/존경 추구하기 ·확고함/일관적이기 ·아동과 더불어 정직하기 ·환경을 변화시키기 ·현실 지향적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과 권위에 의문 제기하기 ·융통성 있고/따뜻하기 ·거친 현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아동을 변화시키기 ·미래 지향적이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
발 달 자 극 역 할	가장 복잡한 갈등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TV 보기, 책읽기, 친구 선택과 같은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를 격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잠재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통제를 해야만 하는가 등에 관한 수많은 변증법이 인지발달, 특히 교육적 딜레마와 관련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성 제공하기 ·흥미 보여주기 ·독립성 주기 ·사회적 능력 격려 ·성숙한 행동 격려 ·새로움 제공하기 ·가르치기 ·한 가지 재능을 발달시키기 ·아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자유를 주기 ·안내하기 ·아동의 선호도에 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없게 되기 ·과관심적이게 되기 ·의존성 유지하기 ·비친숙한 것에 대한 신중함 격려하기 ·아동이 아동답도록 허용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아동이 자신의 방법으로 발견하도록 격려하기 ·모든 발달을 격려하기 ·아동 단점을 수용하기 ·외적인 영향 통제하기 ·아동 욕구에 민감하기 ·사회적 규준에 따르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

〈표 3〉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대상특성

(N=13)

대상	인원	학력	관련 평균 경력
대학교수	3명	박사졸업	부모교육관련 경력 평균 12년
놀이치료 전문가 및 놀이치료사	2명	석사졸업 이상	부모상담 및 교육 경력 평균 12년
부모교육 전문가	2명	석사졸업 이상	부모교육 강사 경력 평균 1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3명	석사졸업 이상	부모교육 경력 12년
박사졸업생 및 과정생	3명	박사과정 이상	부모교육 및 상담 경력 평균 5년

전문가들의 검토방식은 각 구인과 수준별로 문항의 적절성과 일반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인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항의 수정, 첨가, 삭제 등의 여부를 묻고, 수정 혹은 첨가할 내용을 적어 넣도록 하여 검증받았다. 즉 내용타당도의 검토방식은 수량적인 방법이 아닌, 논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를 통해 구인별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문항을 좀 더 첨가할 것과, 쉬운 용어로의 변환, 문맥에서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양가적인 상황의 수정, 문어체적인 표현의 수정, 개념의 명확화, 대화체 표현을 일상적인 용어로 수정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문항이 수정되었고, 세부 항목에 해당되는 3개의 문항이 더 첨가 되었다. 첨가된 문항은 ‘거부’ 구인에서 2문항, ‘합리적 권위’ 구인에서 1문항이며, 문항의 사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은 5문항이었다. 따라서 최종 ‘부모 역할지능 척도의 시안’은 95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문항은 5~7세 자녀를 둔 일반 부모 5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오해할 수 있는 문항, 일상의 부모역할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용어 등을 체크하도록 하여, 일부를 수정하였다.

2) 예비조사 및 결과

이론적인 연구의 토대, 맥락에 대한 사례표

집, 그리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에 따른 부모 역할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가외변수를 동반하는 일로 우려되었다. 즉,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맥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단점을 수용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명료한 의사소통인데, 아이의 단점이 드러나는 상황, 즉, ‘아이가 부산해서 주변 물건을 깨뜨린 후 주눅이 든다면,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라는 상황에서는 이전의 문장보다 명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95개의 문항을 토대로 예비 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1차 조사(Pilot Study)의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사는 만 3세~만 5세 자녀를 둔 부모들로서 250명이었다. 표집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위로 집락표집(cluster sampling)이 사용되었다. 총 7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표집되었고, 이 기관들에서 3세~만 5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고르게 표집 되도록 안배하였다.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부모역할지능 척도 시안’이 사용되었다. 전체 95문항이며, 5

〈표 4〉 1차 조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00)

변 인	구 分	빈도 (%)
성	남	85 (41.3)
	여	107 (51.9)
유아	48개월 이하	91 (44.2)
	49개월-60개월	64 (31.1)
연 령	61개월 이상	45 (21.9)
	35세 이하	56 (27.2)
부	36-40세	93 (45.1)
	41세 이상	50 (24.2)
연 령	30세 이하	12 (5.8)
	31-35세	108 (52.4)
모	36세 이상	80 (38.8)
	고졸 이하	49 (23.8)
부	대 졸	118 (57.3)
	대학원졸 이상	32 (15.5)
부모 학 력	고졸 이하	70 (34.0)
	모 대 졸	119 (57.8)
모	대학원졸 이상	11 (5.3)
	100만원 이하	2 (1.0)
총수입	100-199만원	31 (15.0)
	200-299만원	57 (27.7)
총수입	300-399만원	50 (24.3)
	400-599만원	58 (28.2)
총수입	600만원 이상	2 (1.0)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우선 양육역할에 수용(11문항), 거부(9문항), 공감(8문항), 스트레스(8문항)가 포함되었고, 관리역 할에는 융통성(11문항), 합리적 권위(16문항), 통제(8문항)가 포함되었으며, 발달자극역할에는 격려(8문항)와 중진(13문항)이 포함되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설문지는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배포하고, 회수방법 역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250부의 설문을 돌

려서 회수된 213부의 설문지 중 표집연령에서 벗어났거나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200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개발 문항을 정리하였다.

예비조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Cronbach α 로 내적합치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구하여 내적합치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은 제거하였다. 둘째,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하위 개념의 변수별로 각각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 1을 추출하였다. 셋째, 상위 개념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 개념들의 요인 1로 추출된 모든 변수들을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양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용, 거부, 공감의 각각 요인 1에 해당하는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구성타당도에 적합하게 적절하게 요인별로 구분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변수는 제거한 후 재구성하는 것이다. 넷째, 재구성된 변수들을 다시 정리하여 본 조사를 위한 문항으로 재정리하였다.

본 척도가 부모와 접하는 전문가로부터 가능한 맥락의 사례를 표집하고 이 사례를 이론적 토대에 맞게 구성하여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았으나, 척도에 반응하는 반응자는 자신의 경험과 구조에서 ‘맥락’을 해석하기 쉬우므로, 반응자의 일관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로운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여러 절차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요인분석은 주축요인분석(principle axis factoring)을 실시하였고, 회전방법은 프로맥스(promax)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척도의 신뢰도

신뢰로운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합치도가 Cronbach α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우수명, 2002, p.208)에 따

라, 문항 제거시 신뢰도 계수를 0.6로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수용에서 역문항인 3개 문항, 융통성에서 2문항, 통제에서 2문항을 삭제하였고, 그 결과 하위구인별 신뢰도는 .60-.73의 범위를 나타내었다(신뢰도 <표 7> 참조).

나. 요인분석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개의 하위구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위 구인별 요인 1로 묶이는 문항만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최종 문항은 33개였다. 이를 구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양육역할

양육역할에 속하는 하위 구인은 ‘수용’, ‘거부’, ‘공감’, ‘스트레스’이다. 수용문항은 수용 문항끼리, 거부문항은 거부문항끼리 요인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각각 요인 1로 묶이는 문항만을 추출한 결과, 수용에서는 4문항, 거부에서는 3문항, 공감에서는 4문항, 스트레스에서는 3문항이 요인 1로 추출되었다. 이 14문항을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양육’ 요인구조행렬이 제시되었다.

양육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에는 4개의 공감문항이 묶였고, 요인 2에는 3개의 거부문항과 2개의 스트레스 문항이 함께 묶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2개의 문항이 거부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때, 이 5개 문항을 통합하여 ‘거부’ 문항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요인 3으로 묶인 변수들은 4개의 수용 문항이었으나, 요인 4는 고유값이 1보다 작게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요인3까지 설명되는 누적변량은 47.2%로 나타났다.

② 관리역할

관리역할에 속하는 하위 구인은 ‘융통성’, ‘합

리적 권위’, 그리고 ‘통제’이다. 각 하위구인별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 1로 묶이는 문항만을 추출한 결과, 융통성에서는 3문항, 합리적 권위에서는 6문항, 통제에서는 3문항이 요인 1로 추출되었다. 이 12문항을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관리’ 요인구조행렬이 제시되었다.

관리영역의 각 하위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요인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은 5개 문항이 합리적 권위로 나타났고, 요인 2는 3개 문항의 통제 변수로 나타났으며, 요인 3은 3개의 융통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리영역의 각 요인별로 구분된 하위변수들은 각각 설명하는 개념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높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설명하는 누적변량은 49%로 나타났다.

③ 발달자극역할

발달자극역할에 속하는 하위 구인은 ‘격려’와 ‘증진’이다. 각 하위구인별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 1로 묶이는 문항만을 추출한 결과, 격려에서는 4문항, 증진에서는 5문항이 추출되었다. 이 9문항을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75번 문항이 격려와 증진 요인 모두에 걸쳐 설명변량을 가지므로(double roading), 이 문항을 삭제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증진 문항과, 3개의 격려문항으로 구분되었고, 이들이 설명하는 누적변량은 51.7%로 나타났다.

예비조사(Pilot Test)를 통해 확정된 하위구인은 ‘스트레스’를 제거한 총 8개이며, 하위구인별 문항 수는 33문항이었다. 본조사의 요인분석을 통해 다시 문항을 선별할 것이므로, 문항별 문항수를 첨가하여 각 하위구인별 6개의 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첨가한 문항은 각 하위구인별 요인분석에서 두 번째 요인으로 묶였던 문항들을 개념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롭게 첨가한 것이며, 이 문항은 설문지

및 문항개발 전문가 1인, 아동치료사 1인, 부모 교육 및 상담 경력을 가진 박사과정생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확정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 과정은,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설문지를 본조사 과정을 통해 그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여 척도를 보완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1차 조사와 유사하게 서울·경기지역에 사는 만 3세~만 5세 자녀를 둔 일반 부모들 225명으로 선정되었다. 표집방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위로 집락표집(cluster sampling)이 사용되었다. 즉 서울시의 경우는 구 단위, 경기도의 경우는 시 단위가 집락 단위가 되었고, 최종 8곳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의 부모가 연구대상이 되었다. 유아들의 연령은 만 3세~만 5세까지 골고루 표집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예비 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변수를 이용하여 제작된 ‘부모역할지능척도’가 사용되었으며, 내용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본조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86)

변 인	구 분	빈도 (%)
성	남	70 (37.6)
	여	104 (55.9)
유아	48개월 이하	65 (35.0)
	49개월-60개월	72 (38.7)
연 령	61개월 이상	49 (26.3)
	35세 이하	63 (34.0)
부	36-40세	90 (48.4)
	41세 이상	30 (16.1)
연 령	30세 이하	18 (9.7)
	31-35세	97 (42.2)
부모	36세 이상	61 (32.7)
	고졸 이하	40 (21.4)
부	대 졸	113 (60.8)
	대학원졸 이상	31 (16.7)
부모 학 력	고졸 이하	69 (37.1)
	대학원졸 이상	14 (7.5)
부모	100만원 이하	6 (3.2)
	100-199만원	24 (12.9)
총수입	200-299만원	56 (30.1)
	300-399만원	42 (22.6)
총수입	400-599만원	37 (19.0)
	600만원 이상	17 (9.1)

〈표 6〉 부모역할지능척도의 문항

상위 구인	하위 구인	수준 (Level)	개 넘	문 항
요인 I	공감 (6문항)	민감성	·상황보고 자녀 행동 감정 예측	13. 전철이 처음인 아이가 전철소리에 놀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큰 전철 소리에...
			·자녀가 보내는 신호 알기	14. 아이가 기운이 없어 보일 때 “어디 아프니?”, “속상한 일 있니?”등의 표현이나...
양육 역할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표정보고 자녀 감정 알아차리기	15. “음... 있잖아.”라고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 가까이 다가가서 눈높이를...
			·자기 지시적 열심에 대한 공감	16. 아이가 자기 그림에 대해 열심히 설명할 때, “이 그림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구나.”...
			·또래관계에서의 공감	17. 친구에게 맞고 온 아이를 보니 화가 난다. 하지만 아이는 얼마나 속상하겠나 하는...
			·의존적이지 않게 하기	18. 걷다가 넘어진 아이가,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데도 나를 쳐다보고 그대로 있다...

상위 구인	하위 구인	수준 (Level)	개념	문항
	거부 (6항목)	적대감 및 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부 : 바쁘다 말하기, 상대하지 않기 · 부정적 평가와 징계하기 (체벌) · 악의적 감정 : 단점강조, 비난하기 	<p>7. 집안 일로 바쁜데 아이가 말을 계속 시키면, “저리 좀 가. 바쁘잖아.”라는 식으로...</p> <p>8. 아이가 달걀을 사왔는데, 혼들고 왔는지 몇 개 깨져있다. 이런 경우 속이 상해서...</p> <p>9. 물 컵을 놓다가 쏟았다. 순간적으로 “너는 왜 그런 것도 못하니? 매일 얘기해도...</p>
요인 1 양육 역할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관련 스트레스 · 부모자신 관련 스트레스 · 자녀관련 스트레스 	<p>10. 부부싸움을 한 날에는, 남편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아이를 보면 나도...</p> <p>11. 나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다. 그러고 나면 부모자격이 없다...</p> <p>12. 행사에 필요한 중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아이가 적어온 쪽지를 읽어버렸다. “도대체...</p>
	수용 (6항목)	지지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해낸다는 기대감 갖기 · 장점 찾아 강화해주기 · 자녀에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 	<p>5. 아이가 고장 낸 장난감을 만지작거렸더니, 소리가 잘 나기 시작하였다. 손재주가 좋...</p> <p>1. 아이가 자신의 키가 작다고 생각한다면, 작아서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p> <p>6. 내일 가져갈 색종이를 스스로 챙기는 아이에게, “혼자서 잘 챙기는구나.”라는 식으...</p> <p>2. 아이가 부산해서 주변 물건을 깨뜨린 후 주눅이 든다면,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p> <p>3. 달리기 시합을 해서 꼴지를 한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고 말해준다.</p> <p>4.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 때, 아이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애정표현을 한다.</p>
	합리적 권위 (6항목)	독립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청할 때까지 인내하기 	25. 아이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일(예. 지퍼 채우기)이지만, 아이가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기다려준다.
		정서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좋은 정서·감정 표현 · 부모의 미안한 정서·감정 표현 	<p>26. 놀이터와 같은 바깥 장소에서 아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올 때, 안아주거나...</p> <p>27. 없어진 물건을 아이에게 가져가지 않았냐고 혼냈었는데, 나중에 다른 곳에 둔 것...</p>
		합리적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옮지 못한 행동에 대한 설명 · 정서적 어려움, 전후 사정 설명 · 다양한 상황에의 귀납법적 설명 	<p>28. 우리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세치기를 한다면, 왜 순서를 지켜야 하는지 밝혀준다.</p> <p>29. 아이들이 싸우면, 둘 모두를 불러서 왜 싸웠는지 그리고 왜 싸우면 안 되는지...</p> <p>30. TV에서 이론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올 때 아이가 그 장면에 대해 질문하면...</p>
요인 2 관리 역할		변화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에 당황하지 않기 	<p>20.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에 내가 외출하고 집에 없을 경우, 아이들에게...</p> <p>23. 아이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당황하거나 화내기보다...</p>
융통성 (6항목)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규칙 바꿀 때 개방적 협상 · 자녀욕구와 가족욕구 유지하기 	<p>21. 아이가 늦게까지 TV를 보려는 문제를 고치려고 한다. 아이와 함께 해결점을 찾을...</p> <p>22.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이때 아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p> <p>24. 부모가 바라는 것과 아이가 바라는 것이 반대될 때, 우리는 아이가 바라는 대로...</p> <p>19. 아이들에게 가족의 생일을 알려주고, 항상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생일선물을 준비...</p>
	통제 (6항목)	명료함· 적절성·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도덕에 대한 통제 · 부모의 상황에 상관없는 일관성 · 약속과 규칙에 대한 일관성 	<p>34. 아이에게 상황이 될 때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p> <p>35. 음식점에 가서 아이가 돌아다니거나 뛰어다니면, 그렇게 못하도록 제지한다.</p> <p>36. 집에 손님이 와 계실 때라도 아이가 고집을 피우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안...</p> <p>31. 양치질 하고 있는 아이에게, “빨리 닦고 자라”고 연거푸 이야기하게 된다.</p> <p>32. 아이 혼자 볼록을 정리하는데, 한 손으로 한 개씩 담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p> <p>33. 마루에서 훌라후프를 하는 아이에게, “훌라후프로 TV치면 안된다.” 등과 같은...</p>

상위 구인	하위 구인	수준 (Level)	개 념	문 항
요인 3 (6항목)	격려 (6항목)	발달진보 축하	·사회·정서적 진보 축하하기 ·끈기와 노력지속 축하하기 ·신체적 진보 축하하기	37. 아이가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한다. 싱크대가 좀 더러워지겠지만, “설거지 해줄... 38. 아이가 끈기 있게 만든 것을 보여줄 때, 별것은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들은 후... 39. 젓가락질을 시작한 아이에게 “점점 더 잘하는데?”라고 말하면, 아이가 열심히 하는...
		탐색격려	·편견/선입견 갖지 않도록 돋기 ·해결방법 미리 알려주지 않기 ·자유로운 공간탐색 지지	40. 아이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이상하게 쳐다볼 때, 몸이 좀 불편한 것뿐이라고 말... 41. 아이가 “이건 왜 그래?”라고 물어볼 때, “글쎄, 왜 그럴까?”라는 식으로 말하여... 42. 오랜만에 동물원에 왔다. 아이가 한 가지 동물에 호기심을 보이며 떠나지 않으려...
		기본기술 멘토되기	·모델링을 통한 간접 교수 하기	44. 식사시에 “다른 사람도 모두 앉으면 같이 먹자.”라고 말함으로서 어른을 기다리는...
	증진 (6항목)	언어촉진 의사소통	·자녀가 알고 있는 단어 사용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 확장 ·개방적 의사소통하기	45. 아이가 막 익힌 단어나 표현을 악힐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 단어나... 46. 아이가 아는 단어가 나오면, 이해를 돋기 위해 관련된 노래·게임·낱말잇기 등을 한다. 47. 동화책을 읽을 때,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가 생각하고 느낀 것에...
		터득한 기술 확장	·인지적 능력의 다양성 연습 ·한 가지 기술 확장을 위한 지원	43. 아이가 그림자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며, 햇빛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신기해... 48.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했던 활동(예. 칠흙 놀이)을 아이가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경우...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총 225부의 설문을 배포한 결과 198부가 회수되었다. 누락된 부분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186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을 정리하였다.

자료분석은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그리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각 구인에 해당하는 하위구인(sub-factor)별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여, 각 구인에

하위 구인이 적절하게 묶이는가를 평가한 후, 상위구인(factor)간 총화평점척도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최종 척도 문항을 확정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러한 절차는 본 척도뿐만 아니라 HOME 척도(상위구인 3개, 하위구인 9개)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하위 구인수가 많고 각각의 하위구인이 상위구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적 모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

〈표 7〉 하위 영역별 Cronbach α 계수

하 위 영 역	예 비 조 사			본 조 사		
	문 항 수	역문항수	신뢰도	문항번호/수	역문항수	신뢰도
수 용	8	없음	0.61	1- 6 (6)	없음	0.63
거 부	10	10	0.70	7-12 (6)	6	0.81
공 감	8	4	0.61	13-18 (6)	없음	0.73
융 통 성	9	3	0.60	19-24 (6)	없음	0.60
합리적 권위	17	8	0.60	25-30 (6)	없음	0.70
통 제	6	5	0.62	31-36 (6)	없음	0.62
격 려	8	2	0.70	37-42 (6)	없음	0.84
증 진	13	3	0.73	43-48 (6)	없음	0.73

III. 연구 결과

1.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본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1차 조사에 비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거된 문항도 없었고, 신뢰도가 1 차 조사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하위구인별 신뢰도는 .60-.84의 범위를 나타냈다(표 7참조).

2 요인분석결과

우선 구인별 요인분석 결과를 실시하였다. 즉, 양육역할에 관한 하위구인별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 1로 묶인 문항들만 추출하여, 다시 3가지 구인(수용, 공감, 거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구인에 혼재된 문항은 삭제하였다. 그 결과가 거부가 6문항(7, 8, 9, 10, 11, 12), 공감이 6문항(13, 14, 15, 16, 17, 18), 그리고 수용이 2문항(5, 6)으로 묶였고, 3개 구인의 변량은 5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관리역할에 관한 하위구인별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다시 3가지 구인(융통성, 합리적 권위, 통제)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는 3문항(34, 35, 36), 합리적 권위는 5문항(26, 27, 28, 29, 30), 융통성은 3문항(21, 23, 24, 25)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변량은 51.99%로 나타났다. 발달자극역할도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격려는 6문항(37, 38, 39, 40, 41, 42), 증진도 6문항(43, 44, 45, 46, 47, 48)으로 추출되었고, 누적설명 변량은 47.7%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변수의 요인분석을 위해, 본 조사로 선별된 문항을 토대로 총화평점척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요인 1에는 공감, 격

려, 합리적 권위, 증진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요인 2에는 융통성, 거부, 수용이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는 별도의 요인 3으로 분리되었다(표 8 참조).

세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총변량은 70.4%로 나타났으며, 요인 1, 요인 2, 요인 3에 의한 설명변량은 각각 48.1%, 11.7%, 10.6%이다. 요인분석의 경우 아이겐 값이 보통 1 이상 설명하는 값을 취하는 것이 상례적이나, 요인 3이 경우 아이겐 값이 1이 채 안되는 값이 나왔다. 요인수는 스크리도표의 굴곡점(turning point)이 어느 값에서 꺾이었는가도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총합요인분석의 요인수를 지정하기 전에 스크리도표를 보면 '3'에서 굴곡점이 꺾여 있었으므로 3개의 요인수가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요인2와 요인3의 하위구인들은 총합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이미 요인분석에서 아이겐 값이 1 이상으로 설명되는 요인으로 추출된 것이므로, 총합요인분석에서 아이겐 값이 적게 나왔지만 하나의 상위구인으로 설정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8〉 본 조사의 전체 요인구조행렬

	요 인		
	1	2	3
공 감	.82	-.12	0.030
격 려	.65	0.059	-.11
합리적 권위	.64	.15	.157
증 진	.54	.38	0.025
융 통 성	-.15	.93	0.092
거 부	.19	.49	-.14
수 용	.19	.33	0.077
통 제	0.023	0.055	.82
고 유 값	3.85	0.94	0.84
설명변량백분율	48.15	11.71	10.55
누적변량백분율	48.15	59.86	70.41

새롭게 뮤여진 3개의 상위구인을 명명하기에 앞서, 최초 이론적으로 제시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의 공감, 격려, 합리적 권위, 증진은 유아의 발달을 자극하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발달자극역할'로 명명하고, 요인 2는 유아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양육 및 지지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양육 및 지지 역할'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3은 하나의 하위구인, 즉 '통제'로 이루어졌으나, 하루의 일과 조직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관리해주는 역할이므로, '관리역할'로 명명하였다. 본 조사 자료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문항은 39문항이었다.

3. 개발된 척도(PIS : Parental Intelligence Scale)의 평균과 신뢰도

최종 개발된 PIS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계수는 <표 9>과 같다. 문항수가 제거된 구인에서 신뢰도 계수가 다소 내려갔으며, 전체 신뢰도 범위는 .57-.79이다.

<표 9> 최종 개발된 PIS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N=186$)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공감	6	3.91	.55	.73
격려	6	4.01	.54	.84
증진	6	3.54	.62	.73
합리적 권위	3	4.24	.52	.70
융통	6	3.43	.68	.60
거부	6	3.45	.73	.81
수용	3	4.27	.63	.63
통제	3	4.33	.55	.6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역할지능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2회의 조사와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역할에 있어서도 지적인 적응능력, 즉 지능이 필요함을 꾀하였다. 부모역할지능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3가지 부모역할과 그와 관련된 8가지 부모역할 특성을 추출해내었다. 또한 구체적인 부모역할 상황을 제시하고,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서 실제 양육행동과 유사한 판단을 유도하는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을 토대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한 통계적 과정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개념 및 측정모형으로 개발된 95문항의 척도가 신뢰도가 높고 설명력이 높은 문항들로 재구성 되어 39문항으로 확정되었다. 부모역할지능척도의 문항들 중 예비조사의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문항들의 성격을 보면, 특정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 문항들이었다. 즉 자신의 아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설문 문항에서는 아이가 키가 작다는 것을 상정해야 하거나, 부산하다고 가정해야 하는 문항들이었다. 설문지의 앞쪽에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설문 문항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가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추출된 각 문항은 대체로 갈등적 상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넘어지기만 하면 나를 쳐다본다. 이때...' 등으로 시작하는 문항들은, 그 상황을 부모로 하여금 추론하게하고 부모의 기준 경험과 자녀변수 등을 모두 고려하는 갈등 상황을 거쳐 반응을 선택하게 된다. 즉, 예비조

사에서는 보편적이면서도 갈등적 요소를 담고 있는 문항들이 선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의 요인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첫째, 예비조사보다 본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신뢰도, 즉 내적 일관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예비조사에서 는 8개 구인의 총설명변량이 54.5%였던 반면, 본 조사 분석을 통한 총설명변량은 70.4%으로 요인의 총설명변량이 증가하였다. 즉, 설문지의 개념반영정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예비조사에서 개념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모형을 개발하였으나, 실제 부모들의 반응을 토대로 요인분석 과정을 걸친 결과 모델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가 설정한 첫 번째 구인은 양육역할로서 자녀의 물리적·정서적 단기 욕구에 대해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이며, 이에는 수용, 거부, 공감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부모들은 수용, 거부, 융통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양육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부모들은 자녀에게 민감성을 가지고, 감정이입적 의사소통을 하는 ‘공감’ 특성보다는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안정성과 변화라는 두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융통성’ 특성을 ‘정서적 지원’으로 인식하였고, 수용 및 거부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 특성을 수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owler(2003, p.85-86)가 융통성의 결과로 자녀 수용여부를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즉 융통성 있는 부모(flexible parents)는 아동의 입장과 필요에 적절한 반응들을 좀 더 쉽게 찾고, 융통성 없는 부모(rigid parents)는 아동의 흥미에 알맞은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연구자가 상정한 구인은 ‘관리’역 할로서, 이에는 융통성, 합리적 권위, 통제 등의

특성을 포함시켰다. 관리역 할은 부모가 일관적 이면서도 융통성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하루 일과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의견을 일정정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관리’역 할로 인식한 것은 ‘통제’ 특성뿐이었는데, 통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동하도록 조직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황이 될 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음식점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부모들은 이러한 부모의 특성을, 다른 7가지 특성들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즉 부모들은 ‘통제’를 다른 특성들보다는 성인 중심과 기존 세대의 가치적인 전달로 인식함으로서, 유아조망 능력이 필요한 공감, 격려, 증진, 합리적 권위, 융통성, 거부, 수용 등과의 특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정한 구인은 ‘발달자극’으로서, ‘격려’와 ‘증진’을 포함시켰다. 이는 유아 발달, 즉 자녀의 인지, 자아, 도덕, 친사회적 발달 등을 격려하고 증진하는 역할로서, 자녀에게 기대되는 잠재적 변화와 일치하는 발달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안내, 보호,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연구자가 상정한 ‘격려’와 ‘증진’ 뿐만 아니라 ‘공감’과 ‘합리적 권위’도 자녀의 발달을 격려하고 증진시키는 것과 유사한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발달을 자극하는 역할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자녀에 대한 민감성을 토대로 감정이입적 의사소통인 ‘공감’이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권위를 공감이라는 상위차원으로 묶어낸 Stover, Guerney 와 O'Connell (1971)이 수정하고 개발시킨 ‘성인-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MEACI; Measurement

of Empathy in Adult -Child Interactions Scale)'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자기안내를 허용하는 항목들을 공감이라는 척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전체 요인분석결과에서 구인별 설명변량을 볼 때 부모역할지능척도는 부모의 발달자극 역할, 양육역할, 그리고 관리역할 순으로 설명정도가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2회에 걸친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구인에 적합한 문항들을 추출해내었고, 상위구인에 대한 수정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개념적 틀 안에서 부모들의 반응을 수렴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만 3~만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척도이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문항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참 고 문 헌

김기현 ·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117, 141-150.

박경자 · 권연희(2003). 아동의 사회적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18-27.

박정희(2002). 부모의 가정교육방향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자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양옥경 · 김미옥 · 최명민(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나남출판.

연진영(1987). 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계변인.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오기선(1982). 어버이와 자녀관계 진단검사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우수명(2002). TP 사회복지조사. *인간과 복지*.

이미정(1998). 3세 여아의 행동역제와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과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은지(2002). 아동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 :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의 스트레스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정미(2002). 모자관계 상호작용 행동평가 척도 개발.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이한우(2002).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연구. *정서·학습장애연구*, 18(3), 327-349.

이혜승(2003). Parental Efficacy and Practices among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the US. *아동학회지*, 24(3), 57-71.

이혜영(1986).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황혜정(1997).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p.331-350.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insworth, M. D. S., Bell, S. M., & Stayton, D. J. (1971).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 behavior of one-year-olds. In H. R. Schaffer(Ed.), *The origins of human social relations*. London : Academic Press.
- Baldwin, A. L., Kalhoun, J., & Breese, F. H.(1945). Patterns of parent behavior. *Psychological Monographs*, 58(3).
- Baumrind, D., & Black, A. E.(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NY :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 Rovine, M., & Taylor, D.(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Chase-Lansdale, P. Lindsay., & Pittman, Laura. D. (2002). Welfare Reform and Parenting : Reasonable Expect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12(1), 167-185, www.futureofchildren.org.
- Cicchetti, D., & Toth, S. L.(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 Daggett, M., O'Brien, M., Zanolli, K., & Peyton, V. (2000). Parents' Attitudes About Children : Associations With Parental Life Histories and Child-Rearing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2), 187-199.
- Dix, T., Ruble, D. N., Grusec, J. E., & Nixon, S. (1986). Social cognition in parents : Inferential and affective reactions to children of three age levels. *Child Development*, 57, 879-894.
- Fowler, J.(2003). *A Practitioner's tool for child protection and the assessment of parents*(2nd ed). London : British Library Cataloguing in Publication Data.
- Gilbert, L. A., & Hanson, G. R.(1982). *PPRS :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Scales*. Marathon Consulting and Press.
- Holden, G. W., & Ritchie, K. L.(1988). Child Rearing and the Dialectics of Parental Intelligence. In J. Valsiner (Ed.), *Parental Cognition and Adult-Child Interaction*. 30-59. New Jersey : Ablex.
- Kail, R., & Pellegrino, J. W.(1985). *Human intelligence : Perspectives and prospects*. New York : Freeman.
-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y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Ramey, S. L., & Ramey, C. T(2000). Early Childhood Experiences and Developmental Competence. In S. Danziger., & J. Waldfogel. *Securing the Future*. 122-149.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Rohner, R. P.(1986). *The Warmth dimension :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Psychology*, 226-235.
-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1957). *Pattern of child rearing*. Evanston, Ill. : Row Peterson.
- Stover, L., & Guerney, B., & O'Connell, M.(1971). Measurement of acceptance, allowing self-direction, involvement, and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sychology*, 77, 261-269.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 Y. :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